



攝
心
實
愛
慈
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리-2143(월간·년구독료 15천원)

東友會報

1995年(檀紀4328年) 6月13日 第170號〔1〕

발행인 黃明秀
편집인 金煥英
인쇄인 朴性主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733-3991 ~ 3

FAX: 733-3992

우편대체 012328-31-0525667

은행지번호 7500891

황명수 회장 연임 결정



◇축하 꽃다발을 받은 황회장이 동문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지·면·안·내

- 2면...제18차 정기총회
동우장학회 현판식
- 3면...남가주동문회 골프대회
노희두얼사 추모제
- 4면...경영·행정대학원회장
선출
안산지부 창립
- 5면...경찰계동문 인사이동
황명수회장 명예박사
수여
- 6면...권오철교수 부인 1억
원 기탁
학교 빌진 빙안발표
- 7면...96년도 입시전형
안산지부 소개
- 8면...“우리의 손으로 동우
장학회 기금 확충을”
- 9면...57차 정기 이사회 상
보
회비납부자 명단
- 10면...동문기업팀방(삼창기
입, 신라교역)
- 11면...동국문단 국문학상
휩쓸어
이한우동문 전시회
동인명록 7집 발간

황회장 명예박사 수여

황명수(53점자, 국회국방위원장) 본회 회장은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낸 공로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지난 2월24일 모교 승강당에서 개최된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황회장은 딥사를 통해 “영광과 족복이 가득한 자리에서 저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의 영광을 준 모교에 감사드린다.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한 모교의 발전과 이 나라의 정치발전에 기여한 현신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도 맑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본회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임원진 구성 황회장에게 위임

김영환동문 등 11명에 공로·축하패 수여 겸해

지난 2일 오후 7시 앰배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거행된 본회 제18차 정기총회에서 황명수회장의 유임이 임원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황회장은 총회에 앞서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이사회 석상에서 임원들의 민족일치로 18대 회장에 재추대되었으며, 이날 총회에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황명수 회장을 비롯, 유주령 수석부회장, 박익주 상임부회장 등 250여명의 임원들이 황회장을 축하하는 표정으로 사무처장이 사회로 옆길 이날 총회는 공로패·축하패·감사패·증정·의안심의·회장인사, 축사, 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유근창고문은 이사회에서의 추대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황회장의 연임을 견의했으나 잠기동문들은 열화와 같은 박수로 유고문의 발표에 박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황회장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황명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93년 6월 회



◇ 황명수회장이 취임인사를 통해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장취임 당시 재임은 하지 않겠지만 의사로 분명히 밝혔지만 동의 아니거나 여러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경과를 설명하고, "지난 2년동안 지부지회의 활성화의 보고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과 동우장학

회 등 제반 계획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개선해 우리의 모교인 동국대학교가 진정한 민족사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죄선을 나 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칭찬을 받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본회 회

장단을 비롯한 각 임원진의 구성은 황명수회장에게 전격적으로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각종 시장식에서는 공로패·축하패·감사패가 11명의 동문들에게 전달되었다.

△공로패 수상자: 김영환동문=(주)대우 부회장, 이병동 농업경제학과 교수(재직동문회 회회장), 김갑동 영문학과 교수(경주 재직동문 회회장), △축하패 수상자: 김경복동문=통계정 부이사관 승진, 김시홍동문=문화체육부 청소년 정책실장 관리관 취임, 조성빈동문=경찰정 치안감 경찰정 정보국장 취임, 신윤표동문=한남대학교 대학원장 취임, 배희선동문=경찰청 경무과 행정국장 취임, 흥순직동문=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장 부이사관 승진, 김광주동문=청와대 경호실 차장 취임, 전관용동문=경찰청 경무관 중앙경찰학교 교장 취임 등이다.

한편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원자격, 임원, 임원의 임기, 고문, 지도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자격, 사무처 명칭, 변경 등 회칙 개정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단신

대학동창회 창립총회

한국대학동창회협의회(회장=김제순·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의 창립총회가 각 대학의 동창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4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창립선언문 체택, 회회 심의 의결,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동의 등의 총회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을 겸한 청와대 예방행사를 가졌다. 대학동창회협의회는 그간 발기인과 전형위원회의 모임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창립준비를 해 왔다.

법대 오진모회장 선출

오진모(61법·강원개발원장) 본회 지도위원회(동문)는 지난 달 16일 오후 7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법과대학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회장은 모교 법정대 강사, 경제 과학 심의회의 상공담당관, 국토건설총합계획 실의회 전문위원,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한·일 국토계획분야 한국측 대표 등을 역임하고 현재 강원개발 연구원장, 대한부동산학회장, 모교 경대학원 강사, 5급공무원 공인증개사 시험 출제위원, 강원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위원, 강원21세기 발전위원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불교대학원

학교발전기금 모금운동

불교대학원(원장·목전배)은 지난 달 7일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4대 원장 취임법회를 갖고 동국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해 △권수자=5백60만원 △김희일=5백만원 △김성호동문회장=5백만원 등을 비롯, 총 3천 8백 15만원의 발전기금을 모았다.

동우장학회 본격 출범

97년까지 10억 원 확보 방침



◇ 협판식 참석자들의 밝은 표정만큼 동우장학회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협판식이 지난 4월 11일 황명수회장, 유주령수석부회장, 박익주(61정) 치상임부회장을 비롯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사무처에서 열렸다. 동우장학회는

본회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작년 7월에 공연한 '하늘에 민녹두꽃'의 실경비를 제외한 수익금과 본회 장학기금 적립금을 모아 재정을 준비하고, 지난 2월 21일 서울시 중부교육청의 설립허가, 3월 15일의 법인등기를 마치고 정식발족되었다. 이후 재단법인 동우장학회는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동문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장학기금 확충사업을 전개해 오는 97년까지 기본예산 10억 원의 지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황명수회장은 "이 계획을 본회 장기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저녁 추진하리"고 시달했다.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총동창회 회장단 일동

- ▲ 고 문 박재우/1기 황실호텔/대표이사 0561) 745-3031
김기원/1기 경북 경주시 신평동 375 0561) 42-5503
- ▲ 회 장 이두철/1기 삼천기암(주)/대표이사 0522) 61-0011
- ▲ 부회장 김경오/2기 신라의원/원장 0561) 43-7575 (2기 회장/경주지역회장)
권순익/3기 세화 타자 응변 경리 학원/원장 0561) 772-6662 (3기 회장)
서상노/4기 한미주유소/대표 0562) 75-0202 (4기 회장/포항지역회장)
김무홍/5기 버스미술회집/대표 0522) 38-2366 (5기 회장)
이도형/6기 오성중기/대표 0522) 73-0900 (6기 회장)
이진구/6기 유성건설(주)/대표이사 0561) 749-5311 (7기 회장)
이태웅/7기 동양특수강(주)/대표이사 0522) 92-3399 (울산지역회장)
전안호/8기 (주) 대원칠강/대표이사 0562) 85-6082/3 (8기 회장)
이두원/9기 정명사/대표 0562) 87-1828 (9기 회장)
손용락/10기 대성건재사/대표 0561) 43-5956 (10기 회장)

▲ 갑 사 이도우/2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0561) 41-5007

김찬성/3기 전문건설공제조합 포항지부 0562) 83-1529

▲ 시무국 안정원/6기 울산원에조합/이사 0522) 46-8442 (사무국장)

김정원/6기 대동전력(주)/대표 0522) 49-6200 (총무부장)

김경호/1기 동국대학교 0561) 770-2473 (조직부장)

김용렬/1기 보문개발(주)/대표 0561) 748-8100 (홍보부장/1기 총무)

전현준/1기 울산학원/원장 0522) 43-8984 (사업부장)

▲ 간 사 임상록/2기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0561) 770-2093 (2기 총무)

홍병호/3기 황성국민학교 0561) 749-4561/2 (3기 총무/경주총무)

반상천/4기 반상철웅변학원/원장 0562) 74-1444 (4기 총무/포항총무)

정선진/5기 경남 안산군 하북면 순지리 596 0523) 83-3887 (5기 총무)

이감우/6기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4동 852-41 0522) 68-9972 (6기 총무)

이무근/7기 경주시청 서무과/계장 0561) 748-9024 (7기 총무)

공신일/대진자동차 부품센타대표 0522) 76-4949 (울산총무)

김원도/8기 코오롱스포츠 포항특악점/대표 0562) 46-4488 (8기 총무)

김영찬/9기 보전기압/대표 0522) 36-0671 (9기 총무)

한병열/10기 동우개발/대표 0561) 749-1122 (10기 총무)

총동창회배 골프대회로 화합도모

김경재 회장에게 황희장수여 감사패 전달

남가주동문회

'남가주 동국대학교 동문회(회장=김경재)'는 지난 5월7일 LA소재위티어골프클럽(Whittier Narrow Golf Course)에서 총동창회배정탈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남가주 동문회는 2백여 명의 동문들을 회원으로 두고 해외의 지부지회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남가주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 모교 발전과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유대와 일제감을 든든히 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총 10개팀이 참석하여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이민희 남가주 동문회 고문을 비롯한 원로동문들과 미시간에 거주 중인 이태근 동문 등이 참석하여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또한 이 골프대회에는 남가주 동문회장 김경재, 농군의 조정으로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김영환 사무처장, 모교를 대표하여 김인제 경제학과 교수, 충남지부를 대표하여 하창호 의료보험조합 부장, 학생을 대표하여 김소영 동대신부사 편집자 등이 참석하여 총동창회의 최근 소식과 모교 소식을 전하고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남가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남가주동문회 선우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다짐하기

도 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총 10개 팀이 참여하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장타상=김경재(69농학) △근접상=이종돈(70경영) △3야드플레이스=임재태(56법) △2야드플레이스=정인철 △매달리스트=김용진(73경영) 등이 시상했으며,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참가언은 김용복(국문59)동문이 차지했다.

이날 대회를 마치고 김경재 회장 자택에서 김회장 부인이 손수 정성스럽고 꾸밀하게 진수성건을 준비하여 풍성한 연회가 열렸으며, 이자리에서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동문들에 대한 시상식이 김경재 회장으로부터 있었다.

시상식에 이어 남가주 동문회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기성(52정치) 이민희(56정치) 남가주동문회 고문에게 총동창회 전 회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황명수 총동창회장이 준비한 골프패를 김영환 사무처장이 황희장을 대신하여 전달하였으며, 현 남가주 동문회장 김경재 동문에게 그동안 남가주 동문회의 친목과 우의는 물론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왔고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뜻을 기리

고자 총동창회원의 마음을 모아 황명수 회장이 수여하는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남가주 동문회 골프대회 및 야유회 각종 동문행사를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부은 김경재 회장을 비롯한 배운혁, 김종훈, 이성화 부회장, 직전회장 이성하 이사, 오영환 이사, 오정환 이사, 임경호 이사들의 활동은 현신적이었으며 타 지부지회의 귀감이 됐던 했다. 김경재는 총동창회 활동과 관련해 "선배가 앞에서 이끌고 후배가 믿고 따르는 동대의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모교와 동문회간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회장은 사무처장도 김회장의 말을 이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부 동문회의 활발한 활동은 동창회원간의 결속은 물론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재 회장과 2백여명의 남가주 동문들은 동창회 발전에 대한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임원들의 열정은 시국 하나, 95년도 남가주 동문회의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김기성(52정치), 이민희(56정치·재·민한체 육회장, 전 한인회장, 본회 부회장), 김도안(67불교철학·관음사 주지), 김영주(49경제·입학), 이의섭(61법·Union자동차 LA지점 지점장) △회장=김경재(본명: 김경숙·69농학) △부회장=배문혁(67상학), 이성하(79경제·무역업), 고종구(56정치·울림피혁도 금메달리스트), 계춘영(58경제)



◇ 김경재 회장 자택에서 기념촬영한 남가주동문회 동문들.



◇ 김경재 회장에게 황명수회장을 대신해 김영환 사무처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 총동창회배 골프대회 직후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이사=장우상(56경제·무역업), 고종구(56정치·울림피혁도 금메달리스트), 계춘영(58경제)

·계정자꽃집 대표), 임재태(56법학·전 대한민국 영사), 김봉구(56정치·전 방송인협회 회장), 이규완(59경제·에엔화원 대표), 박철규(61원원·정원한의원, 전 한의사협회 회장), 임경호(65상학·사업), 전수웅(67정치·코리아타운 교민회장), 오영환(70경영·A&S대표), 안달홍(64법학), 김경수(68전자과·입학·영화수출입회사), 정정달, 오창환(67상학), 정진근(60승용), 전기석, 최경(65상학), 이성화(64경제·상업, 전 동문회장), 최명수(72행정), 흥영표(57법학·입학), 장정현(6/상학), 이준정(61법학·Corona Cleaners)

노회두열사 추모제를 보고

노열사의 숭고한 뜻 기려야 4·19혁명 정당화로 위안



◇ 지난 19일 서천국민학교에서 개최된 노회두 열사 추모제 모습.

4.19혁명 35주년인 올해부터는 4.19 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4.19 기념식도 국가행사로 격상함으로써 4.19 혁명의 의의를 기렸습니다. 그러나 둘이 이어 보건데, 4.19의 정신을 가능하면 길들여 소멸시키려고

왔던 시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던가.

4.19정신이란 어떠한 정신인가. 부정과 물의를 용납하지 않는 순결한 정령, 현실적 탐욕을 부추기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보적 이상주의, 국민의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는 깨끗하고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정신, 바로 이러한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 4.19 희생자 노회두 학생의 추모세가 그의 고향 서천국민학교 고정에 세워져 있는 노회두 위령비 앞에서 지난 19일 개최 되었습니다.

이날 노회두 열사 추모제는 유가족 대표와 친지 대표. 그리고 이 추모행사를 매년 주관하는 동국대학교 서천동문회 회원들이 그가 심어 놓은 높은 정신과 업을 기리면서 한시간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4.19 추모일에 참석한 동문들의 감회는 예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느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4.19 혁명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또한 4.19 이념은 개인적 당파적 이전 인수에 의한 평화적 해석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인 문화적 공감대에서 명실공히 국가사회와의 공식적인 가치체계로서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동문들은 1960년대의 4.19에서부터 오늘 세계화

속에서의 4.19 정신에 이르기까지 그칠줄 모르는 대회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인 대회의 흐름은 '민주화·정보화·세계화'의 흐름속에서 4.19 혁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로 집중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표기를 의거해서 혁명으로 비꼬고 묘소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는 외형적 의미에만 만족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의미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민주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4.19 정신을 승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여기에 4.19 정신의 큰 힘은 시민혁명과 평화통일이라는 두 가지 의미부여속에 살아 있음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혁의 꿈을 계속 실천할 수 있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초개처럼 자신의 생명을 던진 4.19의 숭고한 희생자 노회두 열사의 고매한 넋에서 우리 동국인들은 4.19 정신과 이념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김영환 사무처장)

박물관 전시회 개최

도교 박물관(관장=홍윤식)은 지난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종강홀에서 불교민속의식구전을 개최했다. 선종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통도사의 유물 2백여점과 비로 3백여점이 전시되었다. 박물관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통도사, 국립민속박물관이 협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진흥원, 삼성미술문화재단이 후원했다.

경영대학원

이형집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동문님들께 드립니다. 따뜻한 새봄을 맞이하여 그간 동문님의 건승과 대내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3월28일에 개최된 95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2대 동창회장을 선출된 21기 이형집입니다. 동창회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3천1백여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계속되는 한 우리 동창회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지금까지 열기와 성을 다해 우리 동창회를 이끌어 오신 전임 구자선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과 선후배 동문님들의 뜻을 이어 동창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님! 우리 모두가 서로 동창회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동창회의 운영에 직접 참여할 때 동창회는 날로 내실있는 발전을 거듭하여 동창회는 물론 모교의 발전에도 기여하리라 사려됩니다. 이제는 어려웠던 지난날을 말끔히 씻고 자주적으로 자생능력의 기반을 이루하신 구자선 전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님의 의지를 명심하고 동창회관 건립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추진계획과 전 동문님의 한결같은 애원이념이 이루어도록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회장 이형집

구자선회장 이임사

우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창회는 동문 개개인의 영달과 더불어 크게 발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 역시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모든 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때 어려웠던 시대를 다시는 번복하지 않으려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1차 목표를 향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문님들의 성원에 힘을 얻었고, 동문님들의 단합된 모습이야말로 앞으로의 우리 동창회의 장래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후임 이형집 회장님께서는 제가 못 끌까지 허름히 성취해 내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서서 적극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년에 모교를 나온 후 11년동안 부회장으로서의 애원이념과 2년간의 회장으로서의 경험 등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동창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동안 뱃풀어 주신 전 동문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동창회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회장 구자선 배상

경원-동창회관 건립추진

경영대학원 동창회는 지난 3월28일 여의도 63빌딩 20층 연회장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제11대 회장을 역임한 구자선(14기·태우주 택 대표)동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형집(21기·대성강판 인쇄·주(大成印刷)사장)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형집

신임회장은 취임인사말을 통해 “동창회관 건립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추진계획과 전 동문님의 한결같은 애원이념이 이루어도록 청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자선 전 회장은 “동문여러분의 따뜻한 후의에 감사드리며 후임 이형집회장님이

동창회를 한자원 높게 이를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바램을 남겼다. 신임 회장은 모교 경영대학원 총학생회장, 재경 광전증 상업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전경련 최고 경영자 과정 25기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국제아이온 스팀파크 300·지구 제16자연지대위원장, 재경 청양 군민회 회장 등의 재직을 맡고 있다.

행정대학원

박익주 회장 취임사

따뜻한 봄빛에 만물이 생동하는 때에 동문회 회원 여러분의 견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3월24일 열린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유능한 동문회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으로 보좌한 저에게 회장이란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직분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책임감이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우리 동문회는 27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각계 각종에서 공사를 블금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문 모두는 사사로움을 쟁여내고 동국인이라는 명예와 긍지로 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모교의 발전을 물론 동문회의 발전에 노력하며 해심단련한 마음으로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단합 하십시오. 저 역시 앞서 이루어 놓은 풀뿌림 업적과 발전된 동문회의 모든 사항을 토대로 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몽득한 우의와 유대감으로 더 한층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장 박익주

한일은행 정기총회

한일은행동우회는 지난 4월 19일 오후7시 세종호텔 2층 진달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선재(69법학·한일은행 서부본부 추진진) 회장을 재추대했습니다.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 임원개선, 사업계획 등을 안건으로 개최된 1부 행사에서는 김회장을 선출하고, 각 연대별 대표를 간사로 임명함으로써 동우회 활성화를 빼기 위해 간사직을 대폭확대, 현10명에서 23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한편 금년도 전시전사업으로는 동문단결 및 친선도모 행사 실시, 동우회 수첩제작,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적극 참여, 퇴직한 동우회원 모시기, 지방근무 회원에 대한 배려등이 선정됐다. 회장에 선출된 김동문은 한일은행 동촌동·반월·삼선고 지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찬희 회장 이임사

존경하는 정용길 원장님, 김인호 전원장님을 비롯한 모교 교수님, 그리고 임원 및 동문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빛내 주시기 위하여 왕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개인사정에 의하여 동문회에 참석못하고 오랫동안 벌계되어 송구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동문회는 그동안 모교 은사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과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저의 부재기간동안 부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동문 여러분들이 동문회 발전을 위해 애써온신 데 대해 더욱 온정을 느낍니다. 저는 제11대 동문회 회장직을 맡은 이후 동문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러분은 여전히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 한해의 동문회 업무보고와 인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기단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회장 인준의 건은 본회회칙에 의해 회장단회의에서 풀뿌림하신 박익주 동문을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오늘 선출되실 새 회장을 중심으로 동문회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회장 김찬희

'동국인 걸속'다짐—행원

행정대학원 동문회는 지난 3월 24일 오후7시 타워호텔 케코비룸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형집(61정치·본회 신임부회장·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정용길 신임원장, 김인홍 전 원장, 이윤근교학

부장, 김진찬 회장을 등 9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회포를 나누며 회의안건을 토의했으며, 지난 3월1일부로 부임한 정용길원장의 축하행사도 겸해졌다. 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발전을 위하여 학교

'在안산 동창회'창립총회

在안산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백완기·60정치)가 지난 달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되었다.

안산시 고잔동 소재 크리스탈파크에서 열린 이날 총회는 김황우(82건축)동문의 사회로 이희진(65사학)동문의 개회사, 회장단 및 운영위원 선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로는

백완기 회장을 비롯하여 김규선(62법학)고문, 허운택(72경영)동문의 4명의 부회장, 김세준(75화학)동문 등 14명의 이사, 김시영, 김황우동문 등 3인의 총무가 선임되었다.

한편 안산지부는 오는 6월7일 회장단 및 운영위원 선임, 회칙승인, 95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경행과 동문회 승진자축하연

김대원·이연석 동문 등 경사겸쳐

경행과 동문회(회장=김대원·경찰청 기획관리관)는 지난 3월7일 대한각에서 “95년도 정기 승진자 축하모임”을 가졌다. 회장단 전원과 모교 경행과 교수진, 전임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자 축하 및 시기양양과 단결심 고취를 위해 김대원회장과 1기 동문들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고급 시계1점씩이 증정되었으며, 당일 경비는 김회장이 전액 부담했다.

이에 앞서 경행과 동문회는 지난 1월20일 남대문 동원회관에서 회장단 및 각기 동기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김대원동문회장 치안감 승진 축하연을 열고 김회장에게 승진패 및 금1

냥의 행운의 열쇠를 증정기도 했다.

또한 김회장은 지난 3월23일 이상현 학교정실에서 윤남수

(생행과4년) 박용선(3), 지자원(2), 엄기선(1)군에게 각각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매년 8명씩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경행과동문회는 금년초부터 이년석동문의 국회의원 피선을 축하하는 등 동문들의 애경사에 큰 관심을 갖고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95년 경찰간부후보생1차 시험에 21명이 합격해 경행과 창립이후 최다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내외적으로 경사가 겹치고 있다.

동대문구·중랑구 정기총회

송석구총장 취임 축하 겸해

동대문구·중랑구 동문회(회장=서성래·배봉어리이진 원장)는 지난 3월13일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천하가든에서 정기 임원회를 겸해서 신임 송석구 총장 취임 및 이연석 동문 민자당 전국구 국회의원 승계 축하연을 열었다.

이 행사는 서회장을 비롯 김정환(동대부고 교장), 김영구(국회의원)고문과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베풀어졌다.

이날 축하연에서 송석구 총장은 모교의 평가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울러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이연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한 책무수행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시종 회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모임에서 동문들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격의하고 동문의 결속을 한층 다졌다.

부산지부 등산대회

제2회 부산동문 등산대회가 지난 4월28일 금정산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지난해 부터 열린 등산대회는 부산지부의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잡았으며, 이를 위해 지난 4월15일 부산일보 전무실에서 예비모임을 가졌다.

광주지부 임원진 개편

광주지부는 지난 3월7일 봉선동 소재 참치한미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회장직은 이상진(불교광주방송사장)동문이 연임하게 되었으며, 부회장 이하 임원들은 자리변동이 있었다. △수석부회장=이종복(정광고등학교 교장) △부회장=설정환(대성여고교장), 정덕호(대동화성 대표이사), 류홍석(신일스텐 대표이사) △총무=박태현(시온문회사 대표) △부총무=지종선(보성산업 대표) △지재무=박황률(고려증권 차장)

한편 광주지부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단합을 위해 오는 7월17일 경남 남해 보리사로 부부동반 야유회를 떠나게 된다.



本
의
일
면
여
제
신
소
를
이
주

경찰계동문 승진·전보 요직 차지해 '동국'이름 높혀

경찰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
행과 동문들이 지난달 말까지
승진 전보를 통해 주요직에 임
명됨으로써 동국의 명예를 드
높이고 있다. 4월 20일까지의 승
진 전보현황은 다음과 같다.

▲승진인사(심사) △경무관
=김서연(2기)→해경 경비부장
△총경=이철준(5기)→서울교
통과장, 정종민(9기)→부작관
실, 조응연(10기)→경기청 교통과
장, 한강택(10기)→전남청 강력계
장, 어성우(11기)→서울청 형사지
도관 △경정=이세경(1기)→충주
서 보안과장, 정진욱(2기)→천안
서 경비과장, 최서규(2기)→남양
주서 법방과장, 이승우(9기)→경
찰병원 원무계장, 구본길(12기)
→901경전대장 △경감=이남용
(7기)→교전서 방순대장

▲승진인사(시험) △경정=윤
동길(11기)→성남남부서 교통
과장, 박정구(11기)→성남서 경비
과장, 신동건(11기)→부산강서서
수사과장, 서부성(12기)→경기청
상황실장, 양두환(13기)→부산연

사서 경비과장, 조민우(14기)→미
국 MICHIGAN STATE UNIV.
유학증, 안중익(15기)→인천중부
서 경비과장, 구은수(16기)→대구
동부서 교통과장, 임국빈(16기)
→부산진서 경비과장, 윤종기(17)
→인천중부서 경비과장, 조용식
(20기)→경기청 기동대장, 김
상우(20기)→경북경찰서 법방과
장 △경위=윤영신(11기)→양평서
용문PR장, 홍인태(20기)→충남
면허시험장, 박봉구(21기)→충주
면허시험장

▲전보인사(총경급이상) △
지안감=김대우(2기)→경찰청 기
획관리관 △총경=구자태(1기)
→경찰청 인사과장, 오준장(1기)
→진안서장, 김영화(1기)→나주서
장, 윤종욱(2기)→충청서장, 이경
법(3기)→교포서장, 김민근(4기)
→서부서장, 최광현(5기)→충부서
장, 이희경(6기)→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윤동길(11기)→성남남부서 교통
과장

'복척교...'기념출판회

임천준동문



▲ 임 천 준
(54국문·동국
서립대표)동문
은 지난 4월 19
일 정오 대전
유성호텔 스타
볼룸에서 고회
연을 가졌다. '石山任千準 선생
古稀 程 [木尺橋]의 하늘기념
출판회'로 열린 임동문의 고회
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국서
립이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더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 한
편 [복척교의 하늘]은 임동문
이 틈틈이 썴은 생활수상과 일
기, 서간문, 여행기 등의 글을
모아 평년 문집이다.

트리메탈 준공식

이두철동문



▲ 이 두 철
(89년원 삼성
기업 대표)이사
지역별 발대학
원 동창회 회
장)동문은 지
난 15일 오

전11시 트리메탈 코리아(TRI-METAL KOREA)의 공장 준공
식을 가졌다. 트리메탈은 첨단
신소재로 이동문이 지난해 12
월 국내 최초로 제품 생산에
성공해 이번에 공장을 준공하
게 된 것이다. 준공식에 이의
리셉션을 개최했다.

국회의원직 승체

이연석동문

▲ 이 연 석
(74경 행·국회
위원)이 3월 2
일자로 민주자
유당 국회의원
직을 승계했
다. 이동문은

공화당 사무처요원으로 출발해
민정당 기획조정국장, 청년국
장, 행정수석 전문위원, 제13대
대통령선거대책위 종합기획팀
장, 민주자유당 총무국장, 소집
국장,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제
14대 대통령선거대책위 조직팀
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본회
이사, 전주李氏 대同宗約院 중
행분원 고문, 민주자유당 정책
조정실 부실장 등을 맡고 있다.

해운대 구청장 출마

김만연동문



▲ 김만연(62정치·前 해운대
구청장)동문은 민선 해운대 구
청장에 출마했다.

육군참모차장 취임

이재관 동문

▲이재관(89행원)동문은 지

난 4월 17일 군단장직을 끌어차
고 육군참모차장으로 취임했
다.

예술경연대회 개최

박현성동문



▲ 박 현 성
(75행원·본회
지도위원·대한
불교청소년교
육연합회 회
장)동문은 시
난 14일 오
후 21일 모교
중강당에서 대학불
교청소년교육연합회 주최로
'청소년 종합 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정치학회 감사

김강녕동문



▲ 김 강 녭
(77정치·조화
정 치 연구 원
장)동문은 지
난 94년 12월 7
일 의과인보연
구원에서 개최
된 한국정치학회 종회에서 감
사에 선출되었으며, 또한 한국
국제정치학회 1995년도 이사에
위촉되었다.

도선사신도회장 취임

김성호동문



▲ 김 성 호
(93불원·불교
대학원 동창회
회장)동문은 6
월 12일 오전 11
시 우이동 삼
각산소재 도선
사에서 취임법회를 갖고, 30만
에 이르는 신도들의 친화와 향
상을 도모할 신도회장에 취임
했다.

6·27선거 다수출마

홍보전으로 분주한 나날

6·27지자체선거를 맞아 여려
동문들이 경향각지에서 분주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격적
으로 치달아 오른 선거홍보전
의 바쁜 와중에 본회를 찾았아
기사제재를 당부한 동문들도
있었다. 이동문들의 명단과 출
마 연고지를 소개한다.



▲ 김성태(60
국문)동문은
지방자치지 실
시에 대비해
현재 성남시장
에 출마, 분주
한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분당구청장 역임.



▲ 백승정(63
경제)동문은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의욕적
인 활동으로 공
사다망한 나날
을 보내고 있다.



▲ 김동익(65
식공)동문은
노원구청장에
출마했다. 현재
노원구의회 의
장으로 유리한
고지 점령.

● 황명수 회장 명예박사학위



황명수(53정치·국회국방위원회)
본회 회장은 민수화와 성
차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
예를 빛낸 공로로 명예박사학
위를 수여했다. 지난 2월 24일
모교 중강당에서 개최된 학위
수여식에서 민병천총장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황회장은
답사를 통해 '43년에 결친 정
치역정은 가시밭길을 헤쳐 온
형국의 길이다. 3·15부정선거
로 우리 혁명의 왜곡이 시작
된 암울한 시내에 정치에 입문
했으며, 입문과 동시에 독재와
불의에 맞선 투쟁의 길을 시작
하였고, 끊임없는 탄압과 회유
속에서도 우직 찰나로 민주화
와 비른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
해 초지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교도에서 확장시절에 제득한

의지와 신념 덕분이었다."고 과
거를 회고했다.

이어 짐오에는 '황명수의 원
명에 정치학 박사 학위 취득 축
하연이' 소피엘 앤버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오녹원이사장.

민병천총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정·재계인사와 동문 등 5백
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데 본회 유주행수석부회장의
조정자 대표 인사말로 시작해
성대히 치러졌다. 황회장은
행복한 순간이었다.

▲ 박수천(77
행정)동문은
고향인 양평군
수에 출마, 정
렬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속적인

준비로 호명.

▲ 김용희(61정자·김포포장장
총관 대표)=2월 12일 김포군민
회관 다목적홀에서 차녀 결혼

▲ 김경재(61경재·(주)동보
대표이사)=3월 15일 호텔 뉴월
드에서 장녀 결혼

▲ 오재태(61결제)=2월 25일
종립동 약현 천주교회에서 장
녀 결혼

▲ 이병화(61경제·(주)영진공
사 부사장)=4월 29일 양재동
독립문 성결교회에서 장남 결혼

▲ 박달식(62정치·대광화석대
표)=4월 9일 수성관 광복호텔
은하수홀에서 장남 결혼

▲ 유연수(64행정·남양주세무
서)=4월 16일 서울 교육문화회
관 가야금홀에서 장남 결혼

▲ 정성복(67법학·(주)봉황실
업 상무이사)=4월 1일 논현동
천주교회에서 장남 결혼

▲ 정재수(73행정·내부부 차
관보)=3월 24일 남서울교회에
서 딸님 결혼

▲ 윤성택=4월 22일 한강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차녀 결혼

승진

▲ 최윤숙(66경제)=서울신탁

은행 광주지점 지점장

▲ 최경희(69식공·제주은행 본점 영업부
회장)=제주은행 본점 영업부
회장

▲ 서수일(71법)=서울신탁은행
여신관리부 특수채권경리팀
팀장

▲ 최오석(78전산·부산지부총
무)=선경증권 부전동지점장

▲ 김삼훈(81행원·부산지부회
장)=부산일보 전무

▲ 이재희(92행원)=국민연금
관리공단 강남지부 자격관리부
장

▲ 김동익(65
식공)동문은
노원구청장에
출마했다. 현재
노원구의회 의
장으로 유리한
고지 점령.

▲ 정기석(59사학)=2월 18일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삼남 결
혼

▲ 정혁호(61영문)=5월 28일
2011년도 모친상

▲ 오진오(61법학·강원개발원
장)=4월 1일 친환경 오복근동문
별세

▲ 조희재(67공공·콜롬버스코
어퍼레이션(주)대표이사)=3월
21일 모친상

結婚

▲ 김현숙(68법학·불교광주방
송사장)=불교광주방송 설립
개국

▲ 김진문(71경영·신성약품
(주)대표이사)=5월 25일 신사
목에 마련해 준공식 개최

▲ 김지선(84법학·(주)봉황실
업 대표)=봉황실업 논현동
본점에서 결혼

▲ 김재현(73행정·내부부 차
관보)=3월 24일 남서울교회에
서 딸님 결혼

▲ 윤성택=4월 22일 한강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차녀 결혼

▲ 오진오(61법학·강원개발원
장)=4월 1일 친환경 오복근동문
별세

▲ 조희재(67공공·콜롬버스코
어퍼레이션(주)대표이사)=3월
21일 모친상

計音

▲ 오진오(61법학·강원개발원
장)=4월 1일 친환경 오복근동문
별세

▲ 조희재(67공공·콜롬버스코
어퍼레이션(주)대표이사)=3월
21일 모친상

모교 단신

대교협, 화공과 우수평가

모교는 지난 3월1일 발표된 대학교육협의회 주관 94년 화학공학과 평가에서 우수학과로 평가되었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행·재정 시설설비 부문으로 나눠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모교는 특히 교수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19기념 등산대회

모교 학생처(처장=곽준규·교육학)는 4·19기념 제26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지난 4월15일 북한산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19를 기념하고 동국인의 학회과 자긍심을 고양한다는 취지 아래 등산대회 이외에 4·19기념식, 경기자랑 및 시상식을 가졌다.

김영환 본회 회장은 등산대회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여 4·19묘역을 참배하고 참가자들에게 견승의 말을 전했다.

도음의 전화·팩스 개설

교수에서는 지난 3월27일 교수 직원 학생 등 전 동국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동국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제언을 듣기 위한 도움의 전화 및 Fax를 개설했다.

전화번호는 260-3014, Fax 번호는 260-3694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캡퍼스 차없는 날 실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캡퍼스 차없는 날'로 정한 모교는 지난달 28일 이를 첫 실시했다. 이날 송석구 총장은 교무위원 및 학생들과 지하철로 등교하면서 "지난해부터 주진하고 있는 신학동운동의 취지인 공통체의식의 함양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차 한대도 없는 캡퍼스를 보니 아주 시원하고 청결하며, 즐겁게 보이던 캡퍼스가 넓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 장단기 학교발전계획 발표

자연과학 캠퍼스·불교종합병원 건립

황명수 본회회장, 오뉴원 재단이사장, 송석구 총장은 지난 3월20일 오후 이사장실에서 불교계 기자들과 합동회견을 갖고 '불교종합병원'과 '일산 제3캠퍼스 건립' 등의 장단기 학교발전계획을 밝혔다.

부총장과 처실장 등 10여명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송총장은 △교육개혁을 통한 동국발전 △일산 자연과학캠퍼스 건립 △불교병원 및 영탑(靈塔)묘원 설립 △한국불교 세계화 △행정 및 경영 학교 등에 관한 학교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불교종합병원은 양·한방 통합식 운영으로 병원기사증을 합친 연면적 1만2백평에 1천병상 규모이며, 오는 2년내 부지청 오신 날에 개원할 예정이다. 또 영탑묘원을 설치, 병원영안실과 연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제3캠퍼스는 첨단교육시설을 완비하여 오는 2003년

까지 자연과학 관련 대학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의 세계화 계획에 따르면 △불교학관계의 석좌 및 연구교수제 도입 △불교학전공의 다양화 △한국불교 관련 저술의 영역(英譯) 시도 △불교학술상 제정으로 특별연 구비 지원 △불교연구의 다변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인성교육강화의 일환으로 신사과의 수련 등을 실시, 이를 졸업파스제로 활용하고 별도로 여름불교대학을 96년도부터 전국적 규모로 시행하며 외국어 교육과 전산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발전기금으로 기탁

교육대학원(원장=조영록)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동국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교학부를 통해 개교100주

년기념사업부분에 기탁된 이 장학금은 총34명이 1인당 31만 원씩으로 총1천54만원에 이른다.

동국인명록 재학생 인기

모교 도서관 3층 학위논문실에 비치된 '동국인명록 7집'이 재학생드리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동국인명록은 국문과 동문 현황을 복사하면 한 재학생은 "동문들의 사회활동과 현주소를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나에게 학문의욕을 자극시킨다"며 "니역시 훌륭한 동문의 뒤를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복사이유와 다짐을 밝혔다.

양주동전집 1차분 5권 간행

후학들 참여, 无涯학문 집대성



모교 梁柱東先生 記念事業會(회장=金英培·55國文 모교교수)은 지난 4월말 그 사업의 첫번째

결실로 양주동전집 전집 12권(예정) 중, 제1차분 5권(古歌研究, 麟鷹篆注, 國學研究論叢, 文酒半生記, 人生雜記, 性知性的廣場 etc.)을 간행했다.

한국 고전문학의 큰 승이신 故 梁柱東先生의 기념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21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발족된 이 사업회는 전집간행위원회(위원장=임기증·63國文·모교교수), 기념비건립준비위원회(위원장=강진기·59國文·경기대교수), 문학상준비위원회(위원장=김선학·70國文·모교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립, 이병주, 최세희, 김장호 등의 모교 출신 명예교수들과 현병효(前

세주대 총장), 이상보(國民대 명예교수), 이종출(前 세종대총장) 등은 고문으로 두고 있다.

사업회에서는 뜻 있는 동문들의 협찬을 기대하고 있다.

개교 89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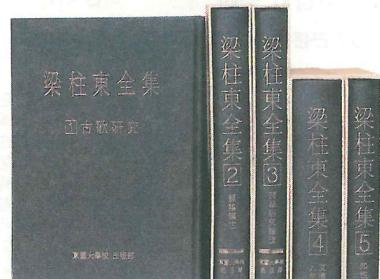
개교 89주년 기념식이 지난 4월 중앙당에서 거행되었다. 황명수 본회회장, 오뉴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大의활동, 기금모금 등)하였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직원에게 공로상과 장기근무자 및 장기근속자 표창이 있었다.

특별공로상은 김병수 경주장학과장이, 장기근무표창은 허찬 보건소장이 각각 수상했다.

梁柱東全集

제 1차분 5권 출간

동국대학교 출판부가 1995년 말 완간을 목표로 진행 중인 양주동전집 전12권 중 제1차분 5권이 출간 되었습니다.



故權五哲 동문

美談 하나

故 權五哲(68법학)동문이 미망인 姜淑慈(51세)여사는 지난 4월12일(수) 10시 30분 고인의 뜻을 기려 모교에 장학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였다. 권동문은 지난 86년부터 모교 경제학과 교수(거시경제학 전공)로 재직해 왔으며, 94년 7월 위암으로 쓰러져 7개월간 투병하다가 지난 2월 28일 별세하였다.

권동문은 경북 달성에서 빙동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에서 마땅히 거처를 찾을 수도 없던 가운데 가난과 배고픔을 이기며 68년 8월 모교 법학과를 조기졸업하였으며 학문에 대한 뜻을 뜻내려 미국 워스콘신 대학에

장학기금 1억원 기탁

유학 경제학을 전공한 후 영남대학교 교수를 거쳐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평소 권동문은 자기와 같이 지난한 후학들이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뭐가 해야겠다는 소신을 미망인에게 자주 말해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소 강연료, 저작료, 방송출연료 등을 전부 저축하였으며 동료교수 및 친구들과 과 대과 및 식사시간도 아끼와 할 정도로 뜻을 이루기 위해 근검절약으로 일관해 왔으며, 94년 7월 쓰러진 때 까지 병명을 알면서도 제자들 생각에 하루도 강의의 휴강하는 일이 없었으며 국경일로 불가피하게 휴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반드시 보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동문의 서서로는 경제학원

론, 화폐금융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학입문, 살아가는 경제이야기, 정치 경제에세이, 포켓속에 작은 경제학, 생활경제에세이, 경제학연습 등 20여권이 있다. 이날 기증식에서 미망인은 "어려운 혈연임에도 고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장학금을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송석구총장은 "개교이래 많은 동문이 장학기금을 전달해 왔지만 이렇게 뜻깊은 1억원의 장학금을 기증받은 것은 조류의 일"이라며 "고인의 뜻을 기려 성적이 우수하나 지난한 학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장학금은 '가정 권리침해 교수 기념 장학기금'으로 명시하고

◇ 각 권 세록

- 1권 古歌研究
- 2권 麟鷹篆注
- 3권 國學研究論叢
- 4권 文酒半生記

5권 지성의 광장

- ◇ 1집(5권) 정가: 5만원
- ◇ 구입처: 260-3483/82
- ※ 통신판매 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우리의 손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獎學基金 募金 參與 案內

- 財團法人 東友獎學會는 1995年 2月21日 設立되었으며 資產 規模는 3億5千萬원으로 設立되었는 바 東友獎學會 基金 10億을 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 東友獎學會 基金 擴充計劃을 조속히 達成하기 위해 1구좌당 10,000원으로 정하고, 全 同門이 1人당 1구좌 이상各自의 事情에 따라 參與할 수 있도록 本會 第18次 定期總會(95. 6.2)를 맞이하여 決議한 바 있습니다.
- 獎學基金 募金에 參與하실 분은 本 約定書를 事務處로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約定書에 記載된 구좌(金額)와 住所에 따라 當 金額의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사무처 주소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신관3층 2호 ☎ 733-3991/3

財團 法人 東友獎學會



제1-497 호

법인설립허가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아래 법인의 설
립을 허가한다.

- 법인명: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 대표자: 황명수 (黃明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 정관: 별첨

1995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東友獎學會 基金 募金 參與 約定書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貴下

本人은 東友獎學會 定款 [第1條(目的)]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관한 法律의
規程에 따라 東國大學校 學生·卒業生·敎職員에게 獎學事業 등을
實施하여 國家 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指導的 人物을 養成하고
教育文化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에 明示된 財團法人
東友獎學會 目的에 적극 共感하면서 ()구좌
()원을 東友獎學會 基金 募金에 參與할 것을 約定합니다.

1995年 月 日

約定者(卒業年度/學科): 大學(院) 學科 年度
(姓名): (인) 또는 사인

自宅:
職場:
住所:



원전 제어계측기기 전문 정비업체

16년만에 4백여 기술자와 2백억 원의 매출

이두철 동문의

삼창기업



“원자력 수출시대를 맞아 한 전과 삼창과 중국 원전에 진출하는 것이 올해 최대의 소망입니다.” 한국원자력 산업회의회장 이종훈(한전사장)가 시행하는 94년도 한국원자력기술상 대상을 수상한 윤산소재 삼창기업 대표이사 이두철(동문)(지원회장)은 “원자력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주는 계기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문은 지난 2

월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내 회의실에서 세교보과기처장로부터 우리나라 원자력 신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아 이 상을 받았다.

삼창기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주제어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제어기기 및 계측기기를 저부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는 전문정비업체. 2백여명의 기술진들이 9기의 국내 원전을 도맡아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했다.

대기업 하청으로 원전시공 등 건설업부터 시작했던 삼창이 계측설비의 기술분야로 뛰어든 것은 지난 89년 이시장은 “도면 하나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외국기술자들이 알미워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16년만에 4백여명의 기술자를 거느리고 2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92년 설립한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전에서 사용되는 주요 전자제어카드의 국산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독일의 지멘스 벤케, 프랑스의 알스톰 등 세계적 기업과 기술제휴 및 대리점 계약을 맺은 이동문은 일년중 2~3개월은 해외에서 지낸다. 사원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성실과 인화를 주로 강조한다.

또한 지난달 15일에는 작년 12월 국내최초로 개발한 첨단 신수재 트리메탈(TRI-METAL)의 생산을 위한 트리메탈 코리아(주)의 공장 준공식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동문의 생활이 기

업운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역개발 대학원 회장을 중심으로 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어려움을 아끼지 않는다. 면접전 소피렐 앤 베서더호텔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자력기술상 수상 축하파티를 전달받는 자리에서도 1천 만원의 사비를 출연해 총동창회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후배들이 공부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 번은 겸손한 바램과 함께… 뿐만 아니라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동문은 모교와 경주캠퍼스에 조형물을 세우고 시설을 보수해 주는 등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어 타 동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또한 어렵게 공부했던 이사장은 원전주변의 불우노인들을 돕는 일을 몇년째 남몰래 계속해 오고 있다.

3대 양 누비는 수산물 굴지회사

원양어업에서 섬유까지 다방면 진출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교를 빛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또는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모교의 명예를 직간접적으로 드높여 준 동문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다. 그중 한사람으로 박준형(63경제·신라교역(주)회장) 동문을 들 수 있다.

박동문이 경영하는 신라교역은 수산물 부문 굴지의 회사로 북양에서 트롤러선 조업을, 태

평양 및 인도양에서 참치 독항선 및 선양선 조업을 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유사업 부문에서 폴리에스터로 지물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건축자재 부문에서도 ALC 및 고압벽돌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다양면으로 진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기업이다.

신라교역은 1967년 설립돼 자본금 4억 원에 사업 80억 원 2천만 원, 550여 명의 사원이 몸담고 있는 출중한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878억 원의 매출액이란 실적을 올렸고 순이익만도 19억 원을 확보했다.

72년 원양트롤러선 한일호(1,200톤급)를 인수하여 북태평양에 출어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원양트롤선을 4척이나 보유

하고 있으며, 82년과 84년에는 LA와 뉴욕에 각각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러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평가받아 87년 5월에는 한국능률협회 선정 최우수 기업상을, 87년 11월에는 제24회 무역의 날 읍밥산업突出상 수상 및 5천만불을 수상기도 했다.

사업장도 본사와 해외 사무소 외에도 수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지사,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밀양공장, 섬유관련업무를 관장하는 대구사무소 등이다. 또한 진흥상호신용금(금융업), 신라수산(수산식품제조업), 신라섬유(섬유제조업), 신라엔지니어링(금형제조업), 현곡개발(관광휴양업) 등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후배 양성을 위한 남다른 애정을 갖

고 신라문화 장학재단을 직접 설립 운영해 모교의 후배들에게 매년 14~15명씩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15년 동안 지급해 오고 있다.

박준형 동문은 총동창회 부회장으로서, 현재의 환경수 회장은 물론 역대 회장들과도 긴밀한 협조속에 동창회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으며, 동국리아이온스클럽(회장 역임)을 통한 봉사활동과 경제학과 동창회, 경동회, 동북회 등을 통한 동문들의 친교활동을 시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동창회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교가 출중한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창회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동문 모두가 힘과 정성을 모으자”고 역설하곤 하던 박동문의 말이 유난히 새롭다.

비씨·장학카드, 국민·동문카드 발급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률은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본회에서는 모교와 동문의 모교애를 나누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비씨·동국대 장학카드와 국민·동문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시면 사용금액의 일정률(0.1%)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국민동문카드 발급 인내 스마트카드 기기 – 모교를 졸업한 분들로 국민신용카드(주)회원자격 기준에 준하는 분 스마트카드 금융서비스 – 긴급 가제자금 대출 서비스, 카드론(이용실적에 카드도난, 분실보상 서비스(신고전 15일부터 부정사용금액의 전액보상), 해외여행 환율상승 보험가입 서비스 △국민카드의 기타 웰컴 서비스 △신청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동봉하거나 국민신용카드(주)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제출 △문의처 – 754-2000

◆비씨장학카드 발급인내 스마트카드 – 현재 비씨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현재 회원인 경우에는 현카드를 장학카드로 교체발급 받거나 추가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카드 – 신용구매서비스, 현금서비스, 동창회원대상 서비스, 카드론서비스, 비씨카드와 기타 서비스 스마트카드 회원은행 –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주택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기은행, 경남은행, 충청은행 △문의처 – 520-4430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한국문단의 버팀목 '동국문학' 입증

동국문단, 신춘문예·각종 문학상 휩쓸어

동문 문인들이 일간지를 비롯한 각 문예지에서 크고 작은 상을 훨쓸어 동국문학 전통의 맥이 살아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국문단에 종주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본교 출신 문인들은 솟적으로도 4백여명을 헤아리며 그 역량은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문학적 성과가 가히 '문화의 전통'이라는 명예를 얻기에 모자람이 없다. 올해에도 여러 일간지와 뉴예지에서 주파

한 신춘문예를 비롯한 각종 부문에서 상을 받아 동국문단의 성과를 높였다.

그 주역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문예일보·4동계문예·문학평론부문에 장영우·동문(현 한국문학연구소·상임연구원), 서울신문 소설부문에 한국인·동문, 세계일보·평론부문에 송희복·동문(90년 조선일보·신춘문예·문화평론·당선), CATV CATCH-ONE과 드립박스가 공동주최한 'CATCH-ONE 개

국기념 시나리오 찾기'에서 창작시나리오 부문 가작을 수상한 박계옥·군(현 4년 재학중), 2천만원 고교·상상문학상에 당선된 성낙수(창동중학교 교사)·동문 등으로 모두 국문과 출신들이�다.

동국문학 전통을 이어나가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가 분석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이렇게 뚜렷한 성과를 얻은 동문들의 활약은 동국문학의 미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양원식동문, 제1회 부산문학상 수상

양원식(62국문·해동고 교감) 동문이 '제1회 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부사부이협회에서 제작한 이상은 부산문협회원경력 10년 이상으로 그동안의 작품활동, 저서, 문단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된 것으로 작품활동과 문단경륜을 높게 평가받은 양원식 동문이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상이 결정되었다.

수상소감을 통해 양동문은 "부산문단을 위해서 이렇게 만한 공적이 없는 자신을 나누며 앞으로 부산문단의 발전을 기원하고 적극한 봉이지만 시조시조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문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82년 월간문학 신인상, 81년

시조문학 추천 등의 경력이 있으며, 성과 시조문학상 제작 및 운영위원장, 영남 시조 백일장 제작 및 운영위원장, 부산시조시인협회 부회장, 부산불교문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시조시인협회이사, 부산시조 편집위원 및 문향편집인, 동구문화예술인협의회 문학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시로는 '권동부'·'봄이 오는 길목'·'황토산책'·'무릎낮은 소리'·'고향별곡' 등이 있다.

알림

동우회보는 동문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이 창작하신 시, 수필, 산문 등을 본회로 우송해주시면 본 지면을 통하여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동문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한우 동문 전시회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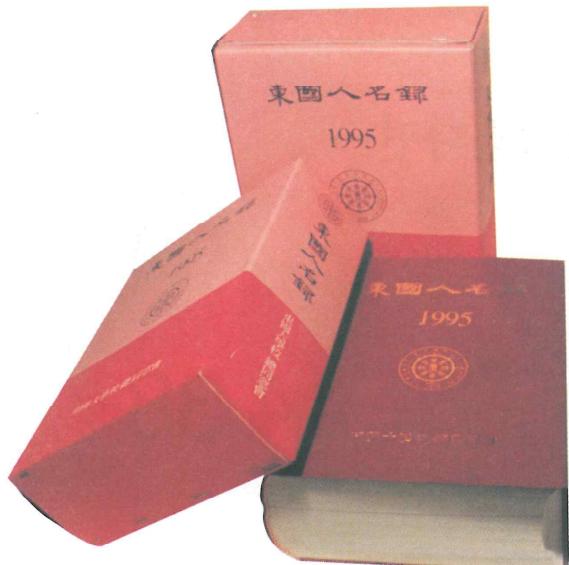
프랑스 크로드피사로와 2인전

이한우 동문은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인사동 백상기념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95미술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일보사가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인상파 출신인 크로드 피사로와 원로작가인 이한우 동문 2인 초대전을 계획한 것이다. 이동문은 한국미술의 발전과 함께한 역량있는 원로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는 작가이다. 함께 초대된 크로드 피사로 역시 피사로 카밀의 직계손으로 프랑스에서 전원풍경 등 인상파 화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이동문과 피사로의 만남은 미술문화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더구나 올해가 '한국 미술의 해'요. 광복5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초대전은 각별한 의의와 각회가 있었던 것이다.

동국인명록 제7집 발간



本會는 10萬 東國人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90년의 제6집에 이어 5년만에 동국인명록 제7집을 발간, 현재 동문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간한 제7집은 1908년 명진학교 졸업생부터 94년 졸업생까지 대학별·학과별·졸업년도별로 동문들의 현주소 직장 및 직위·전화번호 등을 수록, 명실상부한 동국인맥의 기록으로서 동문상호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결속을 다져주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 구입안내

▲ 대금: 4만원

▲ 구입방법

① 本會사무국에서 직접 구입

② 통신판매처에 전화로 주문

* 연락처: 本會사무처 733-3991~3,

통신판매처 273-1509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동악어문학회

새 임원진 구성
학술총서간행 등 사업계획



국문학과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동악어문학회'는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를 통해 임기중(63국문모교 교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했다.

새 임원진은 임기중 대표이사를 비롯, 김갑기(72국문·청주대) 총무이사, 김강동(72·안동대) 연구이사, 김영동(71·보교) 출판이사, 윤관봉(73·대전대) 재정이사, 임성운(75·순천대) 섭외이사, 김의숙(80대원·강원대) 문성숙(85대원·제주대) 감사, 윤재운(85국문·보교) 간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신임 임원진은 1차 임원회의를 열고 학술총서간행(2차, 총 10권), 국제학술회의 개최, 학회지 개지논문 심사제 실시,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학회지 출판 보조비 수혜 확정 등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확정 고수익을 원하신다면 ...

복리정기예금

(단위: 원)

예탁기간	총수익률		세전수령액	세후 수령액	
	일반	세금우대		일반	세금우대
2년	32.09%	16.04%	1,320,987	1,251,987	1,300,137
1년	14.93%	14.93%	1,149,342	1,117,252	1,139,642



- 예탁기간까지 확정된 이자를 드립니다.
- 이자에 이자를 드립니다.
- 중도에 해지하실 때에도 손해가 없습니다.
- 실예금 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드립니다.

※ 세금우대종합통장이 더욱 유리합니다.(한도 1,800만원)

1995. 12. 31까지 - 공제세율 6.5%

1996. 1. 1이후 - 공제세율 10.5%

※ 상품별 세후 수령액은 '95년 세율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

목돈마련을 원하신다면...

가계우대 정기적금

- 매월 10만원씩 불입하시면

(단위: 원)

계약기간	월부금합계	이자	계약금액	세후 수령액	
				일반	우대
24	2,400,000	350,000	25,000	2,694,380	2,750,630
36	3,600,000	777,000	55,500	4,253,520	4,378,390



- 최고의 금리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가계우대정기적금은 특별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표지어음

기간별 할인 매출액(액면가 2천만원 기준) 예시 (단위: 원)

기 간	기준금리	할인매출액	할인이자	연수익률(세전)
60일	13.0%	19,572,603	427,397	14.04%
90일	13.0%	19,358,905	641,095	14.12%
180일	13.0%	18,717,809	1,282,191	14.38%



- 초단기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 금리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